



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연장 추진

〈보도 주요내용〉

4.18일(화) 아주경제는 「경제정책 ‘투톱’ 잦은 이견에 산업현장은 죽을 맛」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
“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”하는 내용은 기재부·산업부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다.

〈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〉

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연장은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 이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협의한 사항으로, 동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산업부	산업공급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종주	(044-203-4910)
		담당자	사무관	황채은	(044-203-4913)
기재부	산업경제과	책임자	과 장	김승태	(044-215-4530)
		담당자	사무관	최 연	(044-215-4531)
	연구개발예산과	책임자	과 장	김준철	(044-215-7370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석	(044-215-7373)